

남성 정장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김 정 미[†]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visual image of men's suit

Jeong-Mee Kim[†]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20. 12. 22 접수; 2021. 1. 20 수정; 2021. 2. 8 채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yle of men's suits and extract expressional words for the development of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of visual imag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silhouette.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studies, case studies, and questionnaires. The stimuli were created using CLO 3D, a virtual sewing CAD. This study's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British suit jacket has an angled shoulder line using thin pads, and a slightly higher waistline. The pants of the suit have a high waistline and two pleats, so the thighs of the pants are wide. The American suit jacket has a natural shoulder line, and the waistline is not emphasized. The width of the jacket is relaxed, and the length is long. The pants of the suit have a higher waistline, and the pants are wide as well. The Italian suit jacket has wide shoulders, and the waistline is connected lower with a soft curve, and the length is relatively short. The trousers of the suit are tapered and get narrower as it goes down to the hem. 2) Because it originated in the practices of true bespoke tailoring, traditional British suits have a far more 'fitted' silhouette than the mass-produced styles that became emblematic of the American style. By the late 1950s, a sack-style suit was standard American business attire. This technique gives the sack suit its characteristically 'boxy' silhouette. The "Continental" presented a highly tailored silhouette, with padded shoulders, a slim, tight-fitting chest, and a closely tapered waist. The story was that Italian culture valued aesthetics over all else and thus sought the 'slim' suit style as much as possible. 3) The main expressional words of visual images for men's suits differ greatly depending on the silhouette of suit. The visual images are ranked in the order of 'neat', 'classic', 'educated', 'hard', 'mature', for fitted silhouettes. The words of 'masculine', 'basic', 'comfortable', 'simple', 'mature', 'conservative', 'modern', are ranked for boxy silhouettes. And the words of 'slim', 'young', 'neat', are noted for slim silhouettes.

Key Words: expressional word(표현 용어), men's suit(남성 정장수트), silhouette(실루엣), visual image(시각적 이미지)

[†] Corresponding author ; Jeong-Mee Kim
Tel. 82-51-629-5367
E-mail : jmkim@pknu.ac.kr

I. 서론

남성 패션업체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 컨셉을 정할 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패션 감성이나 취향을 ‘패션 스타일’이나 ‘이미지’의 용어로 설명한다. 그리고 해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트렌드는 패션 스타일과 이미지로 구체화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는 또 다른 디자인 발상의 근원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세기 이후 남성 패션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몇몇 나라의 문화적, 민족적 기질이 수트를 중심으로 한 특징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대표적인 스타일로는 브리티시 스타일(British style), 아메리칸 스타일(American style), 이탈리아인 스타일(Italian style) 등이 있다(이경희, 김윤경, 2004).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은 매 시즌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의해 트렌디한 수트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폴 스미스(Paul Smith),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랄프 로렌(Ralph Lauren), 브룩스 브라더스(Brooks Brothers),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는 자국의 전통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의 수트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을 엿볼 수 있는데, 수트는 실루엣과 디테일의 변형, 시즌 유행 컬러와 패턴을 반영한 소재 등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난다.

한편, 남성 수트의 스타일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는, 김명옥과 서미아(2011), 박순전(2001), 박영희(2015), 손희순과 최혜옥(2000), 제기연과 이경희(2004)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수트의 디자인 선호도, 구매 및 맞춤세, 체형에 미치는 시각효과, 실루엣에 따른 디테일의 차이 등에 대해 연구하여,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와 평가에 있어 의미있는 결과들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남성 수트가 개성화, 다양화되고 그에 따라 이미지 또한 변화되면서,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과 그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연구자는 남성 수트의 스타일과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남성 수트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수트 스타일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와 효과를 분석하여 정장수트 구성 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는 남성 수트의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장수트의 디자인 개발시 현대 남성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는 남성 정장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평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남성 정장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서는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수트의 스타일과 그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후속 연구인 시각적 평가에서는,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고, 변인간의 상호 영향력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남성 정장수트 구성 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둘째,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미분척도 개발을 위한 주요 표현용어를 추출한다.

II. 연구 방법 및 내용

1.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 고찰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남성 수트에 관한 연구들이며, 여성 수트 관련 연구들도 참고한다.

2.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 분석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는 패션 관련 서적과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하며, 패션기사 및 인터넷 자료는 참조한다. 그리고 사례연구는 남성 정장수트를 대표

〈표 1〉 남성 수트의 표현용어

가벼운, 강렬한, 개성적인, 경쾌한, 고급스러운, 교양있는, 권위적인, 깔끔한, 남성적인, 느슨한, 딱딱한, 매력적인, 모던한, 베이직한, 보수적인, 세련된, 섹시한, 쉬크한, 슬림한, 실용적인, 심플한, 어른스러운, 역동적인, 우아한, 품위 있는, 유머러스한,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젊은, 캐주얼한, 클래식한, 트렌디한, 편안한



〈그림 1〉 자극물의 분류

하는 브리티시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이탈리아 스타일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한다.

3. 남성 정장수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용어 추출

1) 용어 선정

남성 정장수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용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설문지에 사용한 용어는 남성 패션만을 다루는 국내외 전공 서적 「남성 패션 디자인」, 「맨즈웨어」, 「100 Years of Menswear」, 「Icons of Men's Style」에서 수트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형용사들이다. 수집한 용어 중, 유사 용어는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및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적합한 용어를 선정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용어는 총 33개의 단어로 〈표 1〉과 같다.

2) 자극물 제작

자극물 제작은 가상봉제 캐드(CAD)인 클로 쓰

리디 (CLO 3D) 5.2를 사용하였다. 클로 쓰리디는 3차원 아바타(avatar)에 의복 패턴(pattern)을 착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oftware)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interface)와 빠른 드레이핑(draping) 속도로 가상 의복을 제작하는 시스템이므로, 실제 수트를 제작하고 착용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트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복 자극물은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 고찰과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의복 자극물의 실루엣은 브리티시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이탈리아 스타일에서 도출하였고, 의복 자극물의 디테일, 색상과 소재는 스타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것 중, 선행 연구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의복 자극물의 실루엣은 스타일에 따라 다르며, 의복 자극물의 디테일, 색상과 소재는 모두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의복 자극물은 세 가지 실루엣으로, 수트 재킷의 경우 싱글 여밈이고, 노치드 라펠(notched lapel)과 플랩 포켓(flap pocket)이 있으며, 바지는 턴업(turnup) 장식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회색의 울을 사용하였으며, 화이트 셔츠(white shirt)를 매치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자극물은 〈그림 1〉과 같다.

3) 측정 방법

설문조사는 2020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평가 대상으로는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학생 85명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의복평가에 있어서 비전공자들 보다 비교적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경희, 1991).

측정 방법은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 수집한 용어 33개가 있는 설문지를 평가자들에게 배부한다. 그리고 자극물을 1개씩 제시하고, 평가자들이 자극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 용어 10개씩을 선택하도록 한다.

4)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시각적 이미지의 형용사 중에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자 한다. 이때 빈도수가 30이상인 주요표현용어의 비율분포로부터 각 변인 즉, 실루엣에 따른 표현용어의 경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빈도수가 50이상인 주요표현용어를 추출하여 실루엣에 따른 표현용어를 비교한다.

Ⅲ. 결과 및 논의

1.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 고찰

남성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와 평가에 관한 연구로는 김명옥과 서미아(2011), 박순천(2001), 박영희(2015), 손희순과 최혜옥(2000), 제기연과 이경희(2004) 등이 있다.

김명옥과 서미아(2011)는 30대 남성 소비자의 수트 스타일에 따른 구매 및 맞춤새 조사에서, 30대 남성들은 슬림 핏 수트와 클래식 핏 수트를 각각 2~4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핏의 수트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슬림 핏 수트가 실루엣이 피트하여 슬림해 보이기 때문인데 비해, 클래식 핏 수트는 업무 특성상 필요에 의해서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박순천(2001)은 중년 남성 시각효과를 위한 수트디자인과 소재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남성 수트의 여밈과 무늬는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의복 디자인 요소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의복 디자인 요소들은 각 체형에 따라 시각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체형이 착용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박영희(2015)는 현대 2001년 S/S 시즌부터 2013년 F/W 시즌까지의 남성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수트 디자인 요소의 변화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재킷은 실루엣에 따라 라펠의 폭과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며, 팬츠는 실루엣에 따라 밑단의 턱업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손희순과 최혜옥(2000)은 성인 남자의 수트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재킷의 경우 싱글 브레스티드 타입을 더 선호했으며, 팬츠의 경우 20대는 꼭 끼는 타입을, 30대와 40대는 일자 타입을, 50대는 통이 넓은 타입을 선호하였다. 또한 옷감은 무지, 스트라이프, 체크의 순으로 선호했으며, 색상은 파란색과 검정색, 회색, 갈색 계통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반소매 수트와 반바지 수트 같은 수트 형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연과 이경희(2004)는 수트 스타일의 직장 남성에게 대한 시각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직장 남성들을 대상으로 Good 수트 스타일과 Bad 수트 스타일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매력성, 능력성, 부담감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수트의 스타일이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논문은 여성 수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은하와 김옥진(2001)은 중년 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수트의 형태구성 요인의 조합에 따른 시각효과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수트는 구성하는 각각의 디자인 요소의 형태가 갖는 시각효과가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체형과 조합되었을 때는 또 다른 시각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를 스커트 수트와 슬랙스 수트를 비교하여 입증하였는데, 슬랙스 수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스커트 수트를 착용하는 경우보다 상반신이 작아 보이며, 하반신이 길어 보이고 키가 커 보이는 더 좋은 시각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최창석 외(2003)는 스타일에 따른 수트의 이미지 지각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스커트 수트가 슬랙스 수트 보다 더 여성적이고 온화하며, 더 젊고 매력적인 것으로 지각되는데 비해 슬랙스 수트는 스커트 수트 보다 더 능력있는 것으로 지각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와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수트는 슬림 핏과 클래식 핏, 혹은 스커트 스타일과 슬랙스 스타일 같이 수트의 실루엣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싱글 재킷과 더블 재킷 같은 재킷의 여밈 방식, 재킷 라펠의 폭과 형태, 팬츠 밑단의 턴업 유무 같은 수트의 디테일에 따라서도 시각적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실루엣이 다른 수트를 착용한 남성 혹은 여성들은 시각적 평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트의 실루엣과 재킷의 여밈 방식, 재킷 라펠의 형태와 팬츠 턴업의 유무이며, 이러한 요인은 수트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된다.

2.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 분석

2절에서는 남성 정장수트를 대표하는 브리티시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이탈리아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특히, 1절에서 남성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힌, 수트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중심으로 각 스타일의 특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브리티시 스타일(British style)

브리티시 테일러링은 19세기 초, 영국 스타일 혹은 영국적인 룩으로 등장하였다. 당시는 산업 혁명 이후 영국의 무역이 확대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로, 남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서열은 남성복의 재단, 핏(fit), 디테일(detail)을 통해 드러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브리티시 수트는 정확한 재단과 핏, 공정을 통해 철저한 형식성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이탈리아나 미국의 수트와 구별되는 요소가 되었다. 19세기에 런던의 수많은 테일러(tailor)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는 도시 상인들의 주문을 맞추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새빌 로(Savile Row)에 브리티시 테일러링 조합을 열었다. 새빌 로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유명한 브리티시 스타일의 집결지로, 브리티시 스타일은 새빌로 스타일이라고도 한다 (Hopkins, J., 2013).

1901년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1837-1901 재위)의 아들이며 황태자였던 에드워드 7세(Edward VII:1901-1910 재위)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과거와는 대비되는 개방적인 풍조가 생겨났으며, 그것은 남성 패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신사의 워드روب(Wardrobe)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게 되었다. 에드워드 7세는 당시의 남성 패션계에서도 제왕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실은 앨버트 왕자였을 때에도 노퍽 재킷(Norfolk jacket), 홈부르크(homburg), 앨버트 시계 체인을 유행시켰다. 그가 입은 옷들은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림 2>는 1900년경 왕세자의 모습이다. 그는 라운지 수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캐주얼한 수트에 꽃을 달고, 홈부르크를 쓴 채 한 손에는 시가를,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만의 신사다운 우아함을 표출하고 있다(Blackman, C., 2012). 수트의 재킷은 '아우어글래스(hourglass)' 재단으로, 싱글 여밈이고, 약간 하이 웨이스트(high waist)이다. 암홀은 높고 소매와 목은 타이트하다. 그리고 바지 통은 비교적 좁다. 이는 영국 승마복에서 영향 받은 것이다.

그리고 디테일에 있어서도 브리티시 수트는 승마복과 관련이 깊는데, 재킷에는 플랩 포켓과 두 개의 사이드 벤트가 있다. 플랩 포켓은 시골에 있는 동안 주머니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디자인된 것으로, 이를 비스듬히 배치한 것은 라이딩 중에 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혁신이었다. 그리고 양 옆의 벤트는 말을 타는 동안 수트가 뭉치는 것을 방지했다.

에드워드 7세만의 스타일은 유행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즉위하기 이전부터 엄격한 드레스 코드를 유지하였으나, 테일이 생략된 이브닝 웨어, 버튼을 잠그지 않은 프록 코트, 마지막 단추를 잠그지 않는 베스트 등의 혁신을 이끌면서 특유의 스타일을 만들어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스타일을 모방하였다. 덕분에 그가 애용한 새빌로의 헨리 풀(Henry Poole)은 1866년 이래 런던에

서 가장 멋진 수트를 제작하는 곳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왕실과 귀족들을 비롯하여 부유층 남성들, 그 외에도 화려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었다(Henry Poole & Co.: The First Tailor of Savile Row, James Sherwood, Thames & Hudson, 2019).

1920년대의 시대정신은 옷 입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했으며, 왕가의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차후 에드워드 8세(Edward VIII:1936.1-1936.12 재위)가 되는 영국 왕세자는 그 완벽한 본보기였다. 전통과 그의 배경에 대한 기대에 실망을 느낀 그는 혼자 있을 때는 '코트를 벗고, 타이를 풀고, 칼라를 느슨하게 하고 소매를 걷어 올리는 것'을 좋아했다. 잘생기고 느긋한 성격에 옷을 사랑했던 매력적인 그는 조부인 에드워드 7세가 그러했듯이 대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전 세계 언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그는 40년 동안 새빌로우 솔트(Scholte)의 디자인을 애용했다. 프레데릭 솔트(Frederick Scholte)는 자연스러운 어깨 라인, 볼륨있는 가슴, 잘룩한 허리를 강조하는 하이웨이스트 스타일로 실루엣을 드러내는 이른바 '런던 컷(London cut)'을 개발했다(Blackman, C., 2012).

이 재단법은 군복에 사용된 재단 원리를 일반 수트에 적용한 것으로, '드레이프 컷(Drape cut)'이라고도 한다. <그림 3>은 1927년 웨일즈 왕자와 켄트 공작(The Duke of Kent)의 모습으로, 이들은 드레이프 수트를 입고 있다. 재킷은 더블 브레스티드로, 강한 어깨 패딩에 크고 넓은 피크드 라펠이 있으며, 허리는 좁다. 그리고 바지는 허벅지 부분이 넓으며, 단은 끝이 접힌 턴업스(turn-ups)로 장식되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옷 잘입는 남자로 알려진 왕세자는 여행을 갈 때마다, 특히 미국을 갈 때에는 준비를 매우 꼼꼼하게 했다. 여행지에서 그가 입은 옷과 넥타이나 스카프를 매는 방식, 구두 등은 모두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이것은 런던 테일러링의 명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새빌 로는 품질과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급 수준으로, 특출한 테일러링은 200년 이상 계승되고 있다. 새빌 로의 맞춤 수트는 전체 치수를 쥔 다음 새빌 로에서 훈련받은 장인들에 의해 고객의 특수성에 맞추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4주에서 12주에 걸쳐 가봉이 이루어진다. <그림 4>은 1938년 수석 재단사인 미스터 스미스(Mr Smith)이 새빌 로의 헨리 풀에서 재킷을 가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수트는 반드시 손으로 재단되어 모양 잡힌 어깨 패드와 캔버스 심, 손으로 바느질한 바늘땀이 보이는 윗 칼라, 앞단과 트임에 손으로 점 박음질(prick stitched), 손으로 소매 달기, 앞 단추와 커프스 단추는 손으로 달며 크로스 스티치, 모든 안감은 손으로 작업, 진동부분의 안감은 손으로 공그르기, 앞주머니는 손으로 탑 스티치, 트임이 있는 커프스와 손으로 바느질한 단춧구멍, 가장자리를 손바느질한 경사진 가슴 포켓, 솔기로부터 3인치 정도 조정이 가능한 여유있는 시접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새빌 로의 맞춤 수트로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리처드 앤더슨(Richard Anderson), 앤더슨 & 셰퍼드(Anderson & Sheppard), 오즈왈드 보탱(Ozward Boateng), 체스터 바리(Chester Barrie), 데지 & 스킨너(Dege & Skinner), 에드 & 라벤스트로프트(Ede & Ravenscroft), 기브스 & 호크스(Gieves & Hawkes), H헌츠맨 & 썬즈(H Huntsman & Sons), 리처드 제임스(Richard James), 킬고어(Kilgour), 노튼 & 썬즈(Norton & Sons), 헨리 풀(Henry poole) 등이 있다(Hopkins, J., 2013)(Hopkins, J., 2013).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로는 폴 스미스(Paul Smith)이 있다. 그는 1967년 새빌 로의 링크로프트 킬고어(Lincroft Kilgour)에서 일을 시작했고, 1970년 노팅엄에 '남성을 위한 정장(Veste Pour Homme)'이라는 첫 가게를 연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국적인 스타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그의 남성 수트는 전통적인 테일러링을 따르고, 여기에 위트있는 감각을 더해 그만의 수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림 5>는 폴 스미스가 2013년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수트로, 1960년대 모즈 스타일(Mods style)을 연상시킨다. 수트는 전체적으로 슬림하나, 허리선이 분명히 드러나며 아래 버튼을 열어 두어 아랫단이 넓어 보인다. 수트의 재킷은 싱글 여밈이고, 라펠은 노치드이며, 팬츠는 턴업으로 장식되었다. 여기에 그는 핑크 색상의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남성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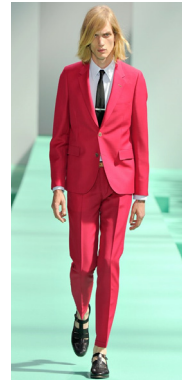
〈그림 2〉
Edward VII, 1900년,
100 years of Menswear
(2012), p.12.



〈그림 3〉
The Prince of Wales &
The Duke of Kent, 1927
(<https://britishroyalty.tumblr.com>)



〈그림 4〉
Head cutter Mr Smith, 1938,
100 years of
Menswear(2012), pp.46~47.



〈그림 5〉
Paul Smith suit,
Hello, My Name Is Paul
Smith(2013), p.111.

2) 아메리칸 스타일(American style)

아메리칸 수트는 20세기 와서 독특한 수트 스타일인 색 수트(sack suit)로 등장하였다. 색 수트는 1840년대에 대중화된 프렌치 코트를 모델로 만들어진 것으로, 헐렁한 핏이 특징이다. 원래 “색(sack)”은 수트의 헐렁함이 아닌 전통적인 프랑스 건축 기법을 의미한다. 포멀 웨어(formal wear)의 표준으로서 4개의 곡선으로 된 조각으로 재킷의 등을 구성하지 않고, ‘색(sacque)’코트는 오직 2개의 직선 패널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기법은 색 수트의 특징적인 ‘박시 룩(boxy look)’을 표현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영국의 복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변화시켰는데, 좁아진 허리가 특징인 영국식 드레이프 컷은 미국으로 건너 오면서 허리가 다소 완화된, ‘뉴 런던 라운지 수트(new London lounge suit)’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메리칸 컷(American cut)’으로 불리게 되면서 대중화 되었다(이경희, 김윤경, 2004). 〈그림 6〉은 ‘익스클루시브 팬시 스타일(Exclusive Fancy Style)’의 1918년 ~ 1922년의 광고로, 짙은 파란색과 회색, 갈색의 스트라이프와 헤링본과 프린스 오브 웨일즈 체크 패턴이 있는 멋진 직물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색이라 불리는 라운지 수트에 있어 디테일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식 테일러링을 규정하는

특징이다(Blackman, C., 2012). 수트의 재킷은 싱글과 더블 여밈이고, 여기에는 노치드와 피크드 라펠이 있으며, 제티드 포켓과 플랩 포켓이 있다.

그리고 영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1930년대의 미국에서는 헐리우드 룩(Hollywood look)이 유행하였다. 클라크 게이블(Clark Gable), 게리 쿠퍼(Gary Cooper),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 등의 영화배우들이 착용한 수트는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이는 아메리칸 테일러링을 규정하게 하였다. 〈그림 7〉은 1935년 영화 〈중국어〉의 세트장에서 클라크 게이블과 잭 베니(Jack Benny)의 모습이다. 게이블의 패치 포켓이 달린 와이드 숄더, 하프 벨트 재킷과 패턴 타이 그리고 화이트 벅스(white bucks)는 그가 미국인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클라크 게이블은 영국에 비해 덜 절제된, 넓은 라펠과 브로드 숄더 타입의 박시한 재킷, 그리고 통이 넓은 바지로 상징되는 루즈한 컷의 미국 테일러링을 즐겨 입음으로써 자국인 미국에서 생산되는 옷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색깔이 있는 셔츠에 스펙테이터 슈즈(spectator shoes), 그리고 와이드한 패턴의 타이와 펠트로 된 중절모, 가능하다면 보르살리노(Borsalino)까지 착용한 그의 룩은 갱단과 시카고 마피아에서 유래한 댄디한 갱스터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곧 헐리우드 룩의 상징이 되었다(Blackman, C., 20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강대국으로 급부



〈그림 6〉

‘익스클루시브 팬시 스타일’
광고, 1918~1922,
100 years of Menswear
(2012), p.35.



〈그림 7〉

Jack Benny & Clark Gable,
1935년, 100 years of
Menswear(2012), p.86.



〈그림 8〉

American style suit worn
by John F. Kennedy,
남성패션디자인
(2004), p.39.



〈그림 9〉

Brooks Brothers' sack suit,
Menswear(2013), p.83.

상하게 되자, 세계 남성 패션의 주류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제 미국식 스타일은 영국식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특히 실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던 아이비 리그(Ivy League)의 학생들은 색 수트를 대학 유니폼으로 빠르게 채택하였다. 색 수트는 혈령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체형에도 맞을 수 있고, 복잡하지 않기에 대량생산이 가능했으며, 저렴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은 미국의 민주주의 열망을 상징했다. 아이비 리그 출신들이 미국 사회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된 1950년대 후반, 색 수트는 세계 비즈니스 맨 옷차림의 표준이 되었다. 〈그림 8〉은 아이비 룩을 대표하는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모습으로, 그는 내추럴 숄더(natural shoulder)의 허리선이 없는 혈령한 투 버튼 수트를 착용하고 있는데(이경희, 김윤경, 2004), 재킷에는 노치드 라펠이 있고, 가슴 포켓과 플랩 포켓이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아메리칸 스타일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다.

아메리칸 테일러링의 역사에서 이름이 알려진 회사로는 브룩스 브라더스(Brooks Brothers), 랄프 로렌(Ralph Lauren), 옥스퍼드 클로즈(Oxford Clothes), 제이 프레스(J Press) 등이 있다. 아메리칸 수트를 대표하는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는

1818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복 체인점으로, 유럽적 감성과 편안한 미국적 태도를 결합시켰다. 수트는 2~3버튼의 색 재킷 스타일로 자연스러운 어깨선과 뒤 중앙 트임으로 이뤄져 있고 허리선이 높은 바지와 함께 입었는데 바지 앞부분에 주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이러한 브룩스 브라더스의 수트는 클라크 게이블과 앤디 워홀(Andy Warhol),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부터 빌 클린턴(Bill Clinton),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에 이르는 수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즐겨 착용하였다. 최근에는 TV 시리즈의 ‘미친 남자(Mad Men)’의 수트를 제작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그림 9〉는 드라마의 중심에 있는 돈 드레이퍼(Don Draper)역의 존 햄(Jon Hamm)의 모습이다. 그는 1960년대 뉴욕 매디슨 거리를 배경으로 브룩스 브라더스의 회색 수트를 입고 있다. 수트의 재킷은 싱글 여밈으로, 노치드 라펠이 있으며, 가슴 포켓과 플랩 포켓이 있다. 여기에서 루즈한 핏과 가는 라펠로 1960년대 스타일을 재현한 이 수트는 돈 드레이퍼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랄프 로렌은 아메리칸 스타일과 동의어로, 아메리칸 테일러링의 명성을 높이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남성 테일러링에서 여유분과 드레이프를 이용하여 미국적 특성을 만들어 냈는데, 그러한 특성에는 자연스러운 라인



〈그림 10〉

남성 패션 전시회장, 1955,
Mens Fashion Design
(2004), p.28.



〈그림 11〉

Marcello Mastroianni,
1960년, 100 years of
Menswear, (2012), p.218.



〈그림 12〉

Giorgio Armani suits, 100
years of Menswear, (2012),
p.294.



〈그림 13〉

Kiton suit, 2019,
(<https://www.kiton.com>)

을 만들어 주기 위해 가벼운 어깨 패드와 허리 곡선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옥스퍼드 클로즈는 미국에서 좀처럼 유지하기 힘든 장인정신과 수공예 테일러링의 전통을 채택하였다. 고품질의 유럽 소재를 사용하는 옥스퍼드 클로즈는 미국식 재단과 핏, 서비스를 창조하였다. ‘미국적 스타일은 미국이 만든다’라는 모토 아래 옥스퍼드 클로즈의 1220 컬렉션은 넉넉함과 드레이프가 가미되어 비즈니스나 사교 활동에 두루 착용이 가능한 스타일로 만들어졌다. 제이 프레스는 미국의 프레피 스타일(preppy style)을 대표하며, 대표 아이템인 색 재킷을 중심으로 일관된 시각적 미학을 보여 주었는데, 주름이 들어가지 않은 전통적인 바지 재단을 선호하였다. 제이 프레스는 미국적인 클래식 스타일이므로 아이비리그의 표준을 지켜가는 데 책임을 다하고 있다(Hopkins, J., 2013).

3) 이탈리아 스타일(Italian style)

이탈리아는 고품질의 텍스타일 직조기술과 장인정신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유럽 남성복의 진화와 발달사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19세기에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통일은 이탈리아의 지역적 차이를 드러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탈리아 수트의 특성으로 이어지고 있다(Hopkins, J., 2013).

이탈리안 패션의 부흥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는

1951년 2월 12일 조반니 바티스타 조르지니(Giovanni Battista Giorgini)가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온 6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피렌체의 본인 저택에서 “최초의 이탈리아 하이 패션쇼”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이 패션쇼에서 10개의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의 18개 모델들을 선보였으며, 패션쇼는 조르지니의 수완, 제품의 품질, 바이어들의 평판, 하퍼스 바자(Harper’s Bazaar)의 이탈리아 에디터인 이레네 브린(Irene Brin) 같은 저널리스트들의 지지로 성공했다. 두 번째 패션쇼는 1951년 7월 피렌체의 그랜드 호텔(Grand Hotel)에서 열렸고, 1952년을 시작으로 피렌체의 피티 궁전의 살라 비앙카에서 매년 1월과 7월 두 시즌 열리는 패션쇼가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사르토리아 안토넬리(Sartoria Antonelli), 로베르토 카푸치(Roberto Capucci), 빈센조 페르디난디(Vincenzo Ferdinandi), 아틀리에 카로사(Atelier Carosa), 지오바넬리 시아라(Giovanelli Sciarra), 폴 이노베르 제르마나 마르첼리(Polinober, Germana Marucelli), 사르토리아 반나(Sartoria Vanna), 율레 베네지아니(Jole Veneziani)와 16개의 회사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1954년에는 이탈리아 패션 피렌체 센터가 탄생했는데, 마리오 반니니 파렌(Mario Vannini Paren)이 디렉터가 되었다. 이 때부터 로마와 밀라노에서도 경쟁적으로 패션쇼가 열리기 시작하여 많은 세계적 디자이너들을 탄생시키며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en.wikipedia.org).

여기에는 제냐(Zegna), 마르조토(Marzotto), 오르메짜노(Ormezzano) 등 쟁쟁한 원단회사들의 과감한 투자와 가격 경쟁력, 그리고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의 이탈리아 수트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수트는 패딩된 어깨, 날씬하고 딱 끼는 가슴, 밀착되게 좁아지는 허리로 매우 높은 수준의 테일러드 실루엣을 선보였다. 이것은 이탈리아 문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미학에 가치를 두며, 따라서 가능한 “가장 날씬한” 수트 스타일을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3년 이탈리아에서 전체 촬영한 최초의 미국 영화인 로마의 휴일(Roman Holiday)이 베스트 픽처(Best Picture)를 수상했는데, 영화의 주인공인 그레고리 펙은 브리오니(Brioni) 수트를 입고, 슬림한 콘티넨탈 핏에 대한 미국의 집착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콘티넨탈 룩(Continental look)의 시대가 도래하다고 하였으며, 영국에서는 마침내 이탈리아 컷이 전 세계 남성들의 비즈니스 수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이 “새로운” 이탈리아 스타일의 수트는 색 수트와 브리티시 스타일을 재빠르게 대체했다.

〈그림 10〉는 1955년 이탈리아 남성 패션 전시회장의 모습이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탈리아 컷이 이전의 1940년대의 볼드 룩(bold look)에 비해 원단의 사용량이 1미터 이상 줄었다고 하였으며, 그 길이가 짧아 앉았을 때 재킷이 의자에 닿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전의 아메리칸 스타일이나 브리티시 스타일과의 형태상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콘티넨탈 룩은 어깨가 다소 넓었으나 1940년대처럼 두텁게 패드를 대지는 않았으며, 앞판의 길이가 짧고 커프스가 없는 가는 바지 스타일이 대표적이다(이경희, 김윤경, 2004).




이탈리안 수트는 세련미와 가벼운 촉감, 우아함으로 유명한데, 이는 가벼운 직물의 사용과 새빌 로의 전통에서 벗어난 심지 사용 때문이다. 수트의 색상 역시 전통적인 영국 스타일에 비해 가볍고 섬세한데, 이는 온화한 날씨와 이탈리아 남성의 개인적 부나 계층을 넘어선 취향,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자로서 수트를 착용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1960년대, 펠리니(Fellini)의 영화 ‘라 돌

체 비타(La Dolce Vita)’는 이러한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고, 전후 이탈리아 남성 테일러링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었다(Hopkins, J., 2013). 〈그림 11〉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상징인 배우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Marcello Mastroianni)의 모습이다. 그는 콘티넨탈 룩의 수트를 입고 있는데, 이 수트의 재킷은 싱글 여밈으로, 노치드 라펠이 있으며, 가슴 포켓과 제티드 포켓이 있다. 어두운 셔츠에 흰 수트를 입고 특유의 선글라스를 낀 모습은 패션 에디터들과 디자이너들에게 끊임 없이 회자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Blackman, C., 2012).

남성 수트에서 이탈리아 스타일의 두각은 그 이후 지속되다가 1980년대 디자이너 시대가 열리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율 산업의 성장, 숙련된 기술과 테일러링의 독창성이 삼위일체가 되어 등장한 이탈리아 수트는 전세계 많은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수트는 어깨가 넓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사지고, 허리의 곡선 처리가 작으면서 아랫단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며, 입었을 때 편안함은 물론 외형적으로도 매우 세련된 느낌을 주어 오늘날 캐주얼 라인에 까지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이경희, 김윤경, 2004). 특히,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는 남성복에 혁명을 가져왔는데, 그는 과도한 무게와 패드로부터 탈피한 비구조적인 재킷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스타일은 깔끔한 테일러드 라인과 섬세한 소재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여성복 컬렉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르마니의 명성은 전 세계 미디어와 고객들로부터 찬사와 충성을 불러일으켰고 남성복에서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모범이 되었다. 〈그림 12〉은 2006년 S/S 컬렉션을 위한 아르마니의 수트이다. 여기에서는 특유의 절제된 테일러링과 저채도의 가볍고 섬세한 직물의 사용으로,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난다(Blackman, C., 2012). 여기에서는 아르마니의 이탈리아 테일러링에 대한 탐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디테일에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재킷은 싱글과 더블 여밈이고, 여기에는 노치드와 피크드 라펠이 있으며, 벤트가 없고, 제티드 포켓과 패치 포켓이 있다. 그리고 바짓 통은 넓다.

이 밖에도, 오늘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탈

〈표 2〉 스타일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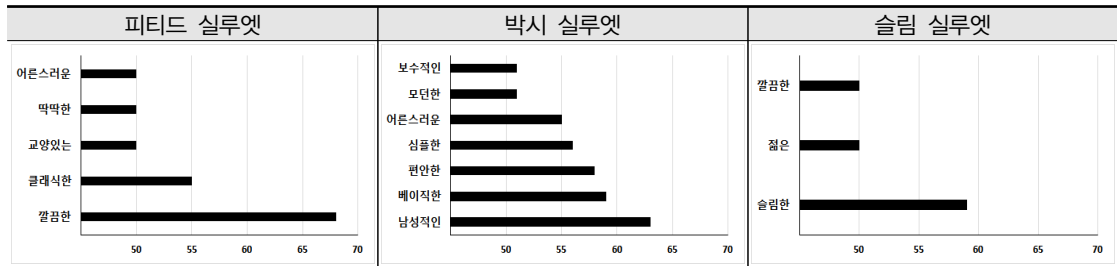
스타일	수트의 디테일 특징	사례	실루엣
브리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진 어깨, 높은 암홀, 뚜렷하게 좁아진 허리를 지닌 재킷 · 노치드 / 피크드 라펠의 싱글 여밈 · 피크드 라펠의 더블 여밈 · 2개의 사이드 벤트 · 플랩 / 제티드 포켓 · 높은 허리, 허벅지 부위가 넓은 바지 · 바지 턱업 장식 		피티드 (fitted)
아메리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고 자연스러운 어깨, 낮은 암홀, 험렁한 허리를 지닌 재킷 · 노치드 / 피크드 라펠의 싱글 여밈 · 피크드 라펠의 더블 여밈 · 1개의 센터 벤트 · 플랩 / 제티드 / 패치 포켓 · 높은 허리, 전체적으로 통이 넓은 바지 		박시 (boxy)
이탈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럽게 경사진 어깨, 높은 암홀, 딱 끼는 가슴, 좁아진 허리를 지닌 재킷 · 노치드 / 피크드 라펠의 싱글 여밈 · 피크드 라펠의 더블 여밈 · 벤트 없음 · 제티드 포켓 · 전체적으로 통이 좁고 짧은 바지 		슬림 (slim)

리아의 수트 메이커들은 지역의 테일러링 하우스와 디자이너 라벨 사이에 존재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품질과 테일러링 전통을 살려 시즌별 높은 수준의 이탈리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브리오니, 키톤(Kiton), 카라체니(Caraceni), 벨베스트(Belvest), 에르메네길도 제냐(Emenegildo Zegna) 등이 있다. 브리오니는 이탈리아의 가장 뛰어난 테일러링 하우스 중의 하나로, 1945년 설립되어 로마에 본사를 두고 있다. 새빌 로마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기성복을 물론 세계적인 맞춤복(custom-made suits)을 판매하고 있으며, 뛰어난 테일러링 기술로 이탈리아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키톤은 모범적인 재단과 핏을 통해 나폴리(neapolitan) 테일러링의 오랜 전통을

대표하며, 맞춤복과 기성복을 생산한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세하고 가벼운 소재인 13.2마이크론(micron)을 사용하며, 부드럽게 둥글린 어깨가 키톤 수트의 특징이다. 이 수트의 재킷은 싱글 여밈으로, 노치드 라펠이 있으며, 가슴 포켓과 플랩 포켓이 있다. 바지는 통이 좁고 턱업 장식이 있다. 로마에서 설립한 카라체니는 이후 밀라노와 파리로 확장했는데, 이 테일러링 하우스의 ‘벤치 비스포크(bench bespoke)’ 수트는 수작업 재단과 개인 고객에게 맞춘 개별적 패턴으로 유명하다. 벨베스트는 베네치아의 테일러링 라벨로, 품질의 전통, 장신정신, 창조성을 유지하고 있다. 벨베스트는 최고급의 소재 선정 기준과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제조 기술을 결합시켜 최고의

〈표 3〉 자극물의 표현용어

실루엣	주요 표현용어
피티드	쉬크한, 고급스러운, 젊은, 권위적인, 품위있는, 보수적인, 슬림한, 세련된, 남성적인, 베이직한, 심플한, 모던한, 교양있는, 딱딱한, 어른스러운, 클래식한, 깔끔한
박시	캐주얼한, 깔끔한, 자연스러운, 느슨한, 권위적인, 실용적인, 클래식한, 딱딱한, 모던한, 보수적인, 어른스러운, 심플한, 편안한, 베이직한, 남성적인
슬림	편안한, 경쾌한, 개성적인, 유머러스한, 베이직한,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심플한, 세련된, 캐주얼한, 트렌디한, 가벼운, 모던한, 깔끔한, 젊은, 슬림한



〈그림 14〉 자극물의 표현용어별 빈도

기성복 수트와 테일러드 아이템을 제공한다. 제나는 양질의 모직 수트 생산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어, 구찌(Gucci),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같은 세계적 럭셔리 디자인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였다. 제나는 최고급 메리노 울 소재의 최대 바이어 중 하나이며, 텍스타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Hopkins, J., 2013).

이와 같이 남성 정장수트를 대표하는 브리티시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이탈리아 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각 스타일에는 자국의 독특한 문화와 민족의 성향을 드러내는 미적 특성이 있다. 이는 스타일별로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특히, 수트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3. 남성 정장수트의 실루엣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용어

3절에서는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2절에서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 대해 살펴본 바, 스타일에는 각각 고유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브리티시 스타일에는 피티드 실루엣, 아메리칸 스타일에는 박시 실루엣, 이탈리아 스타일에는 슬림

실루엣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일을 특징짓는 실루엣으로부터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미분척도 개발을 위한 주요 표현용어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티드 실루엣, 박시 실루엣, 슬림 실루엣으로 의복 자극물을 제작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수집한 용어 33개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평가자들에게 배부한 후, 자극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 용어 10개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1) 피티드 실루엣에서 나타난 주요 표현용어

피티드 실루엣의 자극물로부터 연상되는 형용사는 전체 33개의 용어 중 자유로운과 느슨한을 제외한 31개의 단어가 선택되었다. 이 중 빈도수가 30이상인 용어들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빈도수를 보면, 쉬크한 34번, 고급스러운 32번, 젊은 36번, 권위적인 38번, 품위있는 40번, 보수적인 41번, 슬림한 44번, 세련된 46번, 남성적인 46번, 베이직한 47번, 심플한 48번, 모던한 48번, 교양있는 50번, 딱딱한 50번, 어른스러운 50번, 클래식한 55번, 깔끔한 68번 나타났다. 그리고 빈도수가 50이상인 용어를 대상으로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설명하면, 피티드 실루엣의 남성 정장수트 이미지는 ‘깔끔한’이 가장 많이 나타

났고, 다음으로 ‘클래식한’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교양있는’, ‘딱딱한’, ‘어른스러운’이 많이 나타났다.

2) 박시 실루엣에서 나타난 주요 표현용어

박시 실루엣 자극물로부터 연상되는 형용사는 전체 33개의 용어 중 섹시함과 우아함을 제외한 31개의 단어가 선택되었다. 이 중 빈도수가 30이상인 용어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빈도수를 보면, 캐주얼한 30번, 깔끔한 42번, 자연스러운 43번, 느슨한 44번, 권위적인 45번, 실용적인 47번, 클래식한 47번, 딱딱한 48번, 모던한 51번, 보수적인 52번, 어른스러운 55번, 심플한 56번, 편안한 58번, 베이직한 59번, 남성적인 63번 나타났다. 그리고 빈도수가 50이상인 용어를 대상으로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을 보면, 박시 실루엣의 남성 정장수트 이미지는 ‘남성적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베이직한’, ‘편안한’, ‘심플한’, ‘어른스러운’, ‘보수적인’, ‘모던한’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3) 슬림 실루엣에서 나타난 주요 표현용어

슬림 실루엣의 자극물로부터 연상되는 형용사는 전체 33개의 용어 중 33개의 단어 모두가 선택되었다. 이 중 빈도수가 30이상인 용어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빈도수를 보면, 편안한 31번, 경쾌한 31번, 개성적인 33번, 유머러스한 33번, 베이직한 34번, 자유로운 36번, 자연스러운 38번, 심플한 40번, 세련된 42번, 캐주얼한 43번, 트렌디한 43번, 가벼운 44번, 모던한 44번, 깔끔한 50번, 젊음 50번, 슬림한 59번 나타났다. 그리고 빈도수가 50이상인 용어를 대상으로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설명하면, 슬림 실루엣의 남성 정장수트 이미지는 ‘슬림한’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젊음’과 ‘깔끔한’이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성 정장수트의 실루엣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정장수트 이미지는 피티드 실루엣에서 ‘깔끔한’, ‘클래식한’, ‘교양있는’, ‘딱딱한’, ‘어른스러운’의 용어가 많이 나온 데 비해 박시 실루엣에서는 ‘남성적인’, ‘베이직한’, ‘편안한’, ‘심

플한’, ‘어른스러운’, ‘모던한’, ‘보수적인’의 용어가 많이 나타나며, 슬림 실루엣에서는 ‘슬림한’, ‘젊음’, ‘깔끔한’의 용어가 많이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남성 정장수트의 구성 조건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고 그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미분척도 개발을 위한 주요 표현용어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와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수트는 슬림 핏과 클래식 핏, 혹은 스커트 스타일과 슬랙스 스타일 같이 수트의 실루엣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싱글 재킷과 더블 재킷 같은 재킷의 여밈 방식, 재킷 라펠의 폭과 형태, 팬츠 밑단의 턴업 유무 같은 수트의 디테일에 따라라도 시각적 이미지는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실루엣이 다른 수트를 착용한 남성 혹은 여성들은 시각적 평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트의 실루엣과 재킷의 여밈 방식, 재킷 라펠의 형태와 팬츠 턴업의 유무이며, 이러한 요인은 수트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된다.

둘째,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는 브리티시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 이탈리아 스타일이 있는데, 이를 수트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브리티시 스타일은 새빌 로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새빌 로의 수트는 19세기 초기부터 시작된 비스포크 테일러링의 관행을 엄격히 지키고 있기에, 정확한 재단과 핏, 철저한 공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스타일은 아메리칸 스타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와 정교한 재단으로 인해 더 ‘피티드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재킷은 패드를 사용한 어깨는 살짝 각

이 지고, 진동은 아메리칸 스타일보다 높고 소매는 타이트하다. 그리고 약간 하이 웨이스트로, 허리는 뚜렷하게 좁아지고, 엉덩이까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내려온다. 재킷은 싱글 혹은 더블 여밈이고, 여기에는 노치드나 피크드 라펠이 있으며, 2개의 사이드 벤트가 있고, 플랩 포켓 혹은 제티드 포켓이 있다. 그리고 바지는 허리가 높고, 턱이 두 개나 있어 허벅지 부위가 넓고, 턴업 장식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스타일의 특징은 영국 군복과 승마복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남성의 몸을 강조하고 권위를 드러낸다.

아메리칸 스타일은 색 스타일이라 불리는데, 특히 1950년대 아이비 룩으로 등장한 색 수트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전형으로,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훌륭한 수트이기에, 대량생산에 용이하다. 이 스타일은 테일러드 재킷에서 일반적으로 입체감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닥트와 주름이 없는 훨씬 더 단순한 구조와 직선 재단으로 인해 '박시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재킷은 넓고 자연스러운 어깨에 진동은 브리티시 스타일과 이탈리아 스타일보다 낮다. 그리고 허리는 강조되지 않으며, 품은 넉넉하다. 재킷은 싱글 혹은 더블 여밈이고, 여기에는 노치드나 피크드 라펠이 있으며, 센터 벤트가 있고, 플랩 포켓 혹은 제티드 포켓, 패치 포켓이 있다. 그리고 바지는 허리가 높고, 전체적으로 통이 넓다. 이러한 스타일의 특징은 브리티시 수트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의 열망을 상징하고, 실용적 보수주의를 표현한다.

이탈리안 스타일은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스타일인데, 오늘날의 이탈리아 스타일을 탄생시킨 1950년대 콘티넨탈 룩은 가능한 가장 날씬한 수트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이 스타일은 이탈리아의 특유의 섬세하고 가벼운 직물을 이용한 높은 수준의 절제된 테일러링 방식으로 인해, '슬림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재킷은 얇은 패드를 사용한 어깨는 자연스럽게 경사지고, 진동은 아메리칸 스타일보다 높다. 그리고 가슴은 팽끼고, 허리는 좁아지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아랫단에 연결된다. 재킷의 길이는 브리티시 스타일과 아메리칸 스타일에 비해 짧다. 재킷은 싱글 혹은 더블 여밈이고, 여기에는 노치드나 피크드 라펠이 있으며, 벤트가 없고, 제티드 포켓이 있다. 그리고

바짓 통은 좁다. 이러한 스타일의 특징은 이탈리아 문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미학에 가치를 두며, 개인의 부나 계층을 넘어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편안함은 물론 매우 세련된 남성미를 표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들은 현대로 오면서, 디테일에 있어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탈리아 스타일을 대표하는 조르조 아르마니의 수트에는 패치 포켓이 있으며, 키톤의 수트에는 플랩 포켓과 턴업 장식이 있다. 이처럼 특정 디테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은 자국의 테일러링 전통을 살리면서 매 시즌 수준 높은 수트들을 선보이고 있는 폴 스미스, 브룩스 브라더스와 랄프 로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수트 스타일은 특정 디테일에서 그 경계는 흐려질 순 있지만, 스타일에는 각각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성 정장수트의 스타일에서 나타난 피티드 실루엣, 박시 실루엣, 슬림 실루엣으로 의복 자극물을 제작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수집한 용어 33개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평가자들에게 자극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 용어 10개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시각적 이미지의 용어 중에 빈도수가 30이상인 용어들을 추출하여 빈도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피티드 실루엣에서는 쉬크한 34번, 고급스러운 32번, 젊은 36번, 권위적인 38번, 품위있는 40번, 보수적인 41번, 슬림한 44번, 세련된 46번, 남성적인 46번, 베이직한 47번, 심플한 48번, 모던한 48번, 교양있는 50번, 딱딱한 50번, 어른스러운 50번, 클래식한 55번, 깔끔한 68번 나타났다. 그리고 박시 실루엣에서는 캐주얼한 30번, 깔끔한 42번, 자연스러운 43번, 느슨한 44번, 권위적인 45번, 실용적인 47번, 클래식한 47번, 딱딱한 48번, 모던한 51번, 보수적인 52번, 어른스러운 55번, 심플한 56번, 편안한 58번, 베이직한 59번, 남성적인 63번 나타났다. 슬림 실루엣에서는 편안한 31번, 경쾌한 31번, 개성적인 33번, 유머러스한 33번, 베이직한 34번, 자유로운 36번, 자연스러운 38번, 심플한 40번, 세련된 42번, 캐주얼한 43번, 트랜디한 43번, 가벼운 44번, 모던한 44번, 깔끔한 50번, 젊은 50번, 슬림한 59번 나타났다. 그리고 빈도수가 50이상인 용어를 대상으로, 남성 정장수트의 실루엣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주요 표현용어를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 정장수트 이미지는 피티드 실루엣에서 ‘깔끔한’, ‘클래식한’, ‘교양있는’, ‘딱딱한’, ‘어른스러운’의 용어가 많이 나온 데 비해 박시 실루엣에서는 ‘남성적인’, ‘베이직한’, ‘편안한’, ‘심플한’, ‘어른스러운’, ‘보수적인’, ‘모던한’의 용어가 많이 나타나며, 슬림 실루엣에서는 ‘슬림한’, ‘젊은’과 ‘깔끔한’의 용어가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남성 정장수트에는 국가별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독특한 스타일과 그 스타일을 특징짓는 실루엣이 있으며, 이 실루엣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루엣과 디테일의 변화 요인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고, 변인간의 상호영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남성 정장수트 구성 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명옥, 서미아. (2011). 30대 남성 소비자의 수트 스타일에 따른 구매 및 맞춤새 조사. *복식문화연구*, 19(1), 191-199.
- 김정미, 이정순. (2009). 파워 솔더 재킷의 조형적 특성과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3), 125-134.
- 김현진, 이은숙. (2018). 남성복 컬렉션에 표현된 이미지 스타일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0(1), 167-181.
- 박순천. (2001). 중년 남성 시각효과를 위한 수트 디자인과 소재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4(2), 123-140.
- 박영희. (2015). 현대 남성 수트의 디자인 요소에 나타난 트렌드 변화. *한국디자인포럼*, 46, 95-106.
- 박한희, 김영인. (2015). 남성 패션 스타일의 변화와 특징에 따른 디자인 제안.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4), 117-129.
- 손희순, 최혜옥. (2000). 성인 남자 수트 디자인 선호도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8(5), 79-90.
- 이경희. (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김윤경. (2004). *남성패션디자인*. 서울: 교문사.
- 위은하, 김옥진. (2001). 중년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수트의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시각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5(3), 525-536.
- 제기연, 이경희. (2004). 수트 스타일의 직장 남성성에 대한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4-34.
- 최창석, 김효숙, 이은실. (2003). 유행의복색과 스타일에 따른 수트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학술발표논문집*, 81-81.
- Blackman, C. (2012). *100 years of menswear*.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 Hopkins, J. (2013) *맨즈웨어* (김윤희 외 역). 파주: 교문사.
- Sherwood, J. (2019). *Henry poole & co.: The first tailor of Savile row*. 지명: Thames & Hudson.
- Sims, J. (2011). *Icons of men's style*. London: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 Smith, P., Sudjic, D. and Loveday, D. (2013). *Hello, my name is Paul Smith: Fashion and other stories*. New York: Rizzoli.
- Giovanni Battista Giorgini. wikipedia. (n.d.). 자료검색일 2020. 8. 15, 자료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Giovanni_Battista_Giorgini
- Kiton Suit. (n.d.) 자료검색일 2020. 9. 16, 자료출처 <https://www.kiton.com/en/produit/132-micron-wool-suit/>